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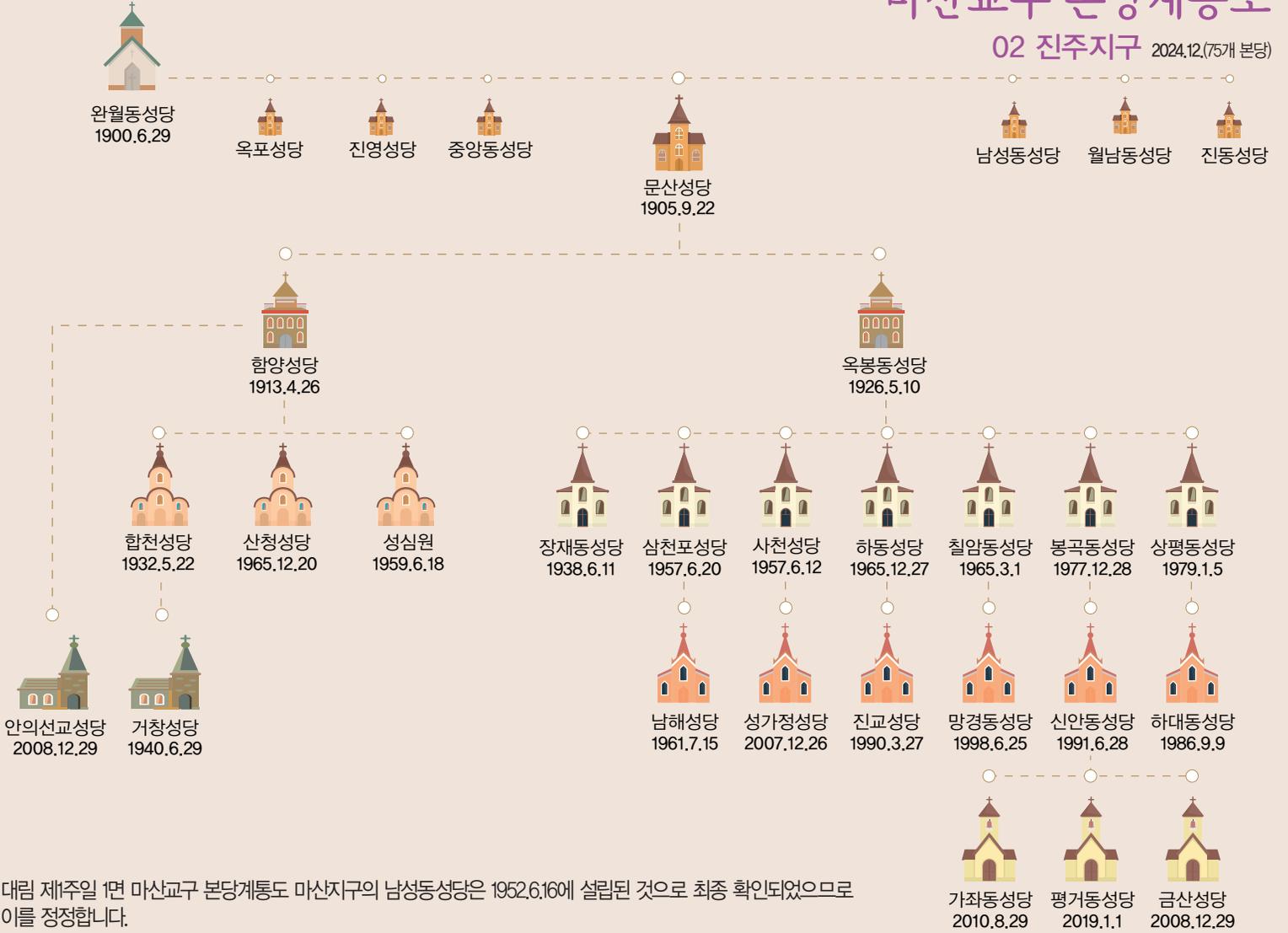


가톨릭마산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 사회 교리 주간
2024년 12월 8일
제2647호

마산교구 본당계통도

02 진주지구 2024.12.(75개 본당)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바룩 5,1-9
- 화 답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제 2 독 서 필리,4-6,8-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복 음 루카 3,1-6
-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승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반송성당 보좌

“
인권주일을 맞아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생명의
존엄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느님의
구원을 각자의 일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다함께 깨어
주님의 다시오심을
기다립시다.”

루카복음 3장의 시작은 1장과 2장의 시작부분(루카1,5:2,1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과는 달리 구체적인 시간대를 언급합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의 행적이 가진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티베리우스황제의 치세 제십오년이라는 구체적인 시대의 언급은 앞선 1장과 2장의 배경이 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시기와는 시간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루카는 이러한 기술 방식으로 세밀하게 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3장 전반부를 통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의 회개의 세례 선포 장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인권주일을 맞아 또 대림시기(Advent)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루카복음 3장은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림이라는 말마디 안에 크게 두 가지 신학의 주제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론의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리스도론적 구원론의 시작입니다. 총 4개의 대림 시기 주일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주일 복음은 종말론적 징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시간의 굴레 안에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영원성에 대해 망각하고, 우리가 편승한 시간의 흐름에 입각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시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루카 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는 정작 세례자 요한의 선포가 담고 있는 회개의 세례가 지향하는 본질적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전해들은 루카복음 3장의 시작부분은 6절을 통해 회개의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원천이신 분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σωτήριον τοῦ θεοῦ)을 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한계지워진 인간의 역사에 그분의 영원함이 머무르셨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질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느님의 영원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론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 되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질 마지막 날, 곧 하느님의 영원성에 들어서면 그순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함께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 깨어 기다리는 우리는 일상에서 하느님의 흔적, 곧 그분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소중한 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 생명이 안전하게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는 도움 또한 하느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긴밀한 연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징표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적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으로 부여받은 그 존엄한 생명과 질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생명을 다해 봉사하셨습니다. 인권주일을 맞아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생명의 존엄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느님의 구원을 각자의 일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다함께 깨어 주님의 다시오심을 기다립시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23명 가운데 18명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지만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 무자격 인력 공급 업체의 비숙련 노동자 투입, 급증한 불량률에 대한 무대책, 발열 전지의 선별 작업 중단 등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회사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구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또 파견된 노동자를 투입하고서도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참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을 파견, 또는 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맡기는 그릇된 관행,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인간적 기업 경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할 때, 위험한 일은 점차 더 힘들고, 더 가난한 노동자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와 거제 조선소의 크레인 참사 노동자들, 그 밖에 수많은 산재 사망자도 위험 외주화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이제는,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처럼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싸고, 책임 회피가 더 쉬운 '이주 노동자'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일이 '더욱더 약한 노동자에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탐욕 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부정되고 가치 기준은 "효율성, 가능성, 유용성"(생명의 복음, 23항)으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며, 특히 힘없는 노동자는 "그냥 버리는 소모품"(복음의 기쁨, 53항)이 되어 버립니다. "일터의 안전을 비용"(프란치스코, 이탈리아 건설 협회 대표단에게 한 연설, 2022.1.20.)으로만 접근하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생산량과 이윤을 위하여 그 '죽음의 멧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슬픔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로 생각하며, 이 또한 영업 손실로 결산합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사용하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초대한 손님'이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항; 『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참조) 그들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인격체'이며, 우리 이웃이자 형제자매입니다.(『두켄(DOCAT)』, 152항 참조) 그들은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1코린, 12,21) 하며 차별하고 배제할 수 없는, 결코 그렇게 하여서도 안 되는 '우리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픈 것처럼,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1코린 12,23-26 참조)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입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봐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유가족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몸은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를 더욱 특별히 그리고 소중하게 안아 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자신도 건강해 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43회 인권 주일입니다. 세상과 이주 노동자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교회와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사목 현장, 1항 참조) 이번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에는 특별히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외면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사와 구조적 불의에 무관심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복음의 기쁨, 54항)하였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우월감을 던져 버리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환대, 보호, 증진과 통합의 시간'(모든 형제들, 129항 참조)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4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선조의 신앙을 물려받아 오직 한 길을 걷은 김태수 라자로 회장

황광지 가타리나/ 가톨릭문인회



두 교구장과의 특별한 인연

김태수 라자로는 1968년 김수환 초대교구장이 서울대 교구로 이입하며 떠날 때 동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교좌 중앙본당 회장으로 있던 터라 교구장의 명을 받았다. 의복과 책들은 화물 편으로 탁

송한 후 마산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삼랑진역에서 서울행 삼등열차를 갈아타고, 서울로 향했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탑승으로 서울역에 내려 택시로 명동성당에 도착했다. 그리고 김수환 대주교는 잘 가라는 손짓을 보내고 기도에 들어갔다. 김태수는 선걸음에 다시 마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제2대 장병화 교구장과는 깊은 연대를 가졌다. 1970년부터 마산교구 평협회장을 맡았던 그는 1971년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 교구장과 함께 떠났다. 당시는 유럽으로 가는 직항로도 없었고, 여비를 환전하는 일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사리 그라츠교구청에 도착하여 베버 주교를 만났다. 그때 장병화 주교는 그라츠교구청과 주교좌성당의 훌륭한 면모를 보고, 마산교구의 열악한 살림살이를 생각하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교구청도 없이 성지여고 뒤편에 한 칸을 빌려 주교관으로 쓰던 형편이었다. 그라츠교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그들의 지원으로 마산교구청을 지을 수 있었던 감사함은 두고두고 잊지 않았다. 우리 교구장의 눈물어린 노력과 그라츠교구의 결연을 직접 피부를 느낀 김태수는 그라츠교구에서 마산교구로 내방하는 분들에게 지극 정성으로 환대했다. 평협회장의 책임감에다 사업도 잘 되고 있는 편이라 교구장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힘을 기울였다.

할아버지의 신심을 새기며

김태수는 1926년 거제도 옥포리 국산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라틴어로 하는 미사에 참여하고 사제를 존경하며 자랐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어촌마을에서 그림 같은 옥포만을 바라보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할아버지 말씀을 새겨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충청도 당진 솔피마을에서 태어나고 살던 할아버지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식솔들을 거느리고 거제 땅에 오기까지 고난의 길을 들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동부면 구천리 산중턱에서 움막을 지어 화전을 일구고 숯을 구워 팔며 연명했다. 할아버지가 와현공소와 국산성당을 알게 된 후 화전 생활을 접고 국산마을에 정착했다. 항상 하느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할아버지 당부에 평생 하느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충청도 가난뱅이”로 불렸지만, 김 바오로 신부 아래서 라틴어를 배우고, 일곱 살부터 새벽 다섯 시 미사에서 친구 윤치운(윤행도 가톨릭 신부의 선친)과 둘이서 복사를 썼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마저 다쳐 가난한 살림이라 초등4년에 중퇴하고, 문산약국 점원 4,5년 후 17살에 일본 노무자로 가서 돈을 모아 돌아와 국산마을에 초가집과 논밭도 몇 마지기 사들여 “충청도 가난뱅이”를 면했다.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일할 때 작은 성당에서 라틴어 덕분에 프랑스 사제 아래 복사도 가능했다. 1년 뒤 귀국하여 논밭을 더 늘였다.

마산에 정착하다

김태수 라자로는 혼배성사를 치르고 옥포를 떠나 거제성당에 다니면서 해방과 6.25를 거치고, 마산으로 이주하여 양품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는 완월동성당에 다니면서 구 마산성당 건축에 많은 힘을 보탰다. 벽돌이 귀했던 시절이라 수소문 끝에 진해 해군병창에서 패망한 일본군이 버리고 간 벽돌을 손수레로 새벽부터 하루에 두 차례씩 실어 날랐다. 본당회장과 손수레를 끌면 교우들이 밀고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었던 그 시절이 인생에서 제일 신바람 났던 때였다고 했다. 김태수는 여기서 1961년부터 1967년까지 회장을 맡아 일했다.



구 마산성당은 1966년 마산교구 설정으로 주교좌 중앙성당이 되었다가, 1979년 양덕동성당이 주교좌로 되면서 남성동성당으로 변경되었다.

그는 상남동본당 설립도 추진했다. 드디어 1966년 마산교구가 탄생하고, 그해 12월 상남동성당도 설립되어 김태수는 초대 회장을 맡아 성당 건축에 돌입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축비를 마련하여 1968년 5월 봉헌식을 올릴 때까지 열정을 바쳤다. 회장 임기를 끝내며 마산교구 평협 회장을 맡은 후에도 상남동성당에서 4대, 5대, 8대 회장직을 받아들여야 했다.

“착하고 진실되게 살자”란 신념으로 3년 2남을 키우면서 살아오는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할 만큼 다방면에서 사업을 했다. 순조로운 것도 있었고, 실패로 끝난 일도 많

았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캄캄한 밤중을 지날 때는 영원히 해가 뜰 것 같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고 했다. “네가 지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라는 시의 구절을 외며 구상 시인 존경했다.

로마교황청 십자대훈장을 받다

김태수 라자로는 1970년 2대 마산교구 평협회장을 시작으로 3,4대까지 이으며 1977년 8월에서야 물러났다. 1977년 1월에는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로마교황청 십자대훈장을 받았다. 그는 과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문하며 십자대훈장 앞에서 마음을 다 비워내고 겸허함 하나로 남은 삶을 살고자 했다.

교구 평협회장, 본당 사목회장을 수행하며 지칠 만했지만, 또 다시 교구의 가톨릭경제인회를 창립하여 1983부터 10년 동안 회장으로 봉사했다. 사회생활에서도 한결같았다. 마산 로터리클럽에 입회하여 꾸준히 사회의 소외된 곳에 손길을 보내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80년 창원상공회의소 초대회장을 지냈고, 1988년 국제로타리 한 지구의 총재를 지내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말년에는 월남동성당으로 옮겨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두터운 신심을 안겨 주었고, 2013년 7월 15일 선종했다.

▶참고: <마산교구40년사>,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 <김태수 자서전>, 마산교구 홈페이지 자료 등





기억할 선종 사제
김용민(레오나르도) 신부
2023년 12월 14일

교구장 서리 동정

재무평의회

일시: 12월 10일(화) 10:00
장소: 마산교구청

故 김용민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12월 14일(토) 10:3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12월 10일(화) 10:00
장소: 마산교구청

교구청 직원 직장인 법정 의무교육

일시: 12월 13일(금)
장소: 마산교구청

故 김용민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12월 14일(토) 10:3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제491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12월 15일(주일) 13:00
장소: 마산교구청

평신도 신앙대학 제29기 모집

자격: 영세한 지 2년 이상, 만 65세 이하의 본
당주임 사제 추천을 받은 자
모집: 선착순 40명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기간: 2년과정(연10회) 1박2일 진행
등록비: 연 620,000원(교육관 2인실 숙박비)

접수: 입학원서(본당사무실 비치) 사목국 제출
(우편 또는 방문) 마감: 12월 31일(화)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여성협의회 상임위원회

일시: 12월 10일(화) 11:00
장소: 마산교구청

M.E 월례회&송년미사

일시: 12월 14일(토) 16:00
장소: 마산교구청

꾸르실로 송년미사&연말보고

일시: 12월 14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제18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영성지
출판기념 감사미사

일시: 12월 14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체나콜로 다락방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16일(월) 13:00~15:00
장소: 마산교구청 2층 성전
준비물: 메시지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구교구청
(11:40)-마산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8771-4577

기 타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 (수) 14:00~20:00
장소: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2층
내용: 정서적 고통, 인간관계, 면담고해성사
상담자: 강윤철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1월 개강, 각 6-8주

-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종세), 이진현 신부
 -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 구약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의복지 특성화 대학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상담심리전공)
원서접수: 24년 12월 31일(화)~25년 1월 3일(금)
문의: 043-270-0100, 0119

501차 부산교구성령묵상회(일반)

일시: 12월 27일(금) 18:00~29일(주일) 17:30
장소: 양산 영성의집
회비: 18만원
문의: 055-382-9465

거창본당 제29대 사목협의회

- | | |
|---------|-------------|
| 회장 | 이덕기(바오로) |
| 남성부회장 | 박선용(도미니코) |
| 여성부회장 | 박영순(에우제니아) |
| 총무 | 신승열(피델리스) |
| 기획홍보분과장 | 김규태(프란치스코) |
| 재경분과장 | 조철호(바오로) |
| 구역분과장 | 유경자(리드비나) |
| 사회복지분과장 | 김국희(도미니카) |
| 교육분과장 | 윤권묵(그레고리오) |
| 복음화분과장 | 조재필(요셉) |
| 전례분과장 | 이승희(루치아) |
| 시설분과장 | 권숙찬(그레고리오) |
| 청소년분과장 | 홍순희(카타리나릿찌) |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9일(월) 19:00	남성동성당	베드로 (성경 속 인물세미나)	이청준 F 하비에르 신부 (사파동성당 주임)	이청준 F 하비에르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p> <p>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p>	<p>욕지도 30년 전복죽 <small>특허</small></p> <p>9만원 5만 5천원</p> <p>12팩(6인용)/중량 300g±5% / 전복, 햅참쌀, 쌀소라 및 재료 100%국내산 / 전국무료택배</p> <p>전복장, 소라장 주문판매</p> <p>김금자 엘리사벳 010.3571.5086 <small>동영시 옥재면 사촌이랫길 112 헤너촌</small></p> <p>무상견적& 친철상담 홍익철거</p> <p>촌집·스레트지붕 전문철거 공장·주택·상가 등</p> <p>이상현 토마스 아퀴나스 010-3913-6202</p>	<p>제주, 전국 167곳 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3박5일 120만 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4일 120만 원 과달루페성모(멕시코) & 마추픽추(페루) 10박12일 720만 원</p> <p>마르코 투어 오완수 바오로 010-4239-1929</p> <p>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p> <p>■ 해외 성지순례 모집 ■ 1월 7일 나가사키 4일 / 1월 13일 베트남 나트랑 5일 1월 21일 태국 파타야 5일 / 2월 6일 스페인 포르투갈 12일</p> <p>■ 국내 성지순례 모집 ■ 제주도 순례 6명부터 출발</p> <p>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p>	<p>최봉원 야고보 신부와 함께하는 대만 문화탐방 및 성지순례</p> <p>25년 1월 9일(목) 출발(4박5일) 1인 155만원(변동가능, 선착순 25명) 주관: 나라여행사 문의: 설민경 루치아 010.9039.5667</p> <p>신세계 피부비뇨기과</p> <p>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p> <p>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p> <p>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p>
--	--	--	--



사천본당 이주민돕기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

지난 10월 30~31일 이틀간 사천본당(주임: 최경식 야고보 신부)에서 실시한 이주민돕기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는 성금 전달식이 11월 24일 미사중에 있었다. 이주민사목을 담당하는 윤종두 사도

요한 신부는 바자회를 위해 애쓰신 사천성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주민사목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씀이 있었다.



용원본당 '성가정 협의회' 설립

용원본당(주임: 장민현 테오도로 신부)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11월 17일(주일)에 설립되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선교와 구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다. 자선사업에 일생을 바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주보 성인으로 정하고 섬김

과 나눔으로 하느님의 사랑 실천하고 있다. 성가정 협의회는 설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명예회원 20명, 활동회원 15명이 창립회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장민현 테오도로 신부의 축복 말씀과 함께 마산교구 사회복지분과 담당사제 최훈 타대오 신부의 격려말씀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웃사랑 실천과 고통 나눔에 동참하는 빈첸시오안으로 봉사하겠다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2024년 공소지도자 연수

사목국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공소지도자 연수로 베트남 성지 순례를 실시하였다. 24명이 참가한 연수는 다낭 대성당, 응우옌 반 투안 추기경 생가, 라방 성모발현지, 짜끼우 성모발현지 등 성지를 순례하며 성모 신심 고취와 각자의 신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 참가자는 "아시아권 다른 나라의 성모 신심과 박해시대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내가 기억하는 사제 신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구 사무처에서는 교구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보에 "내가 기억하는 사제"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교구 선종 신부님들의 모습을 추억하며, 돌아가신 신부님들과의 특별한 교류와 기억을 간직한 신자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A4 용지 12pt 사이즈 2/3 정도의 내용

필수 기재사항: 소속 본당/성명/세례명/연락처

보내실 곳: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 담당 (메일) media2@cathms.or.kr



병자 성사와 교회법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병원에 본당 신자의 봉성체를 갔다가 다른 성당 신자가 병자성사를 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법에서는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 1003조 2항)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 즉 본당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는 본당의 신자들에게, 병원의 원목 신부는 담당 병원의 환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예식서에서는 병자성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자를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신부, 병원이나 요양원의 원목 신부,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환자는 본당 주임 신부님 또는 원목 신부님에게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병자 도유 성사의 고유 집전자는 오직 사제다. 이 성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자는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신부, 병원이나 요양원의 원목 신부,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이다.”(병자성사 예식, 16항)

다만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 담당 사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본당 신자의 봉성체를 갔다가 다른 성당 신자가 신부님을 보고 병자성사를 청할 때, 그 병원의 원목 신부가 있다면 원목 신부에게, 원목 신부가 없다면 그 신자의 본당 신부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직무 담당 사제의 동의나 협조 요청이 있다면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직무 담당 사제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동의를 해줄 것 같은 추정만으로도 어느 사제든지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가 집전이 되면 그 신자의 본당 사목구에 통지하여 병자성사 대장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병자성사를 집전하는데 병자성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유는 주교님께서 축성하시지만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다른 성사들과 달리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병자성사에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신부님이라도 병자성유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자.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교회법 제999조)

기름은 올리브나 그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고, 병자성유 축성기도를 바친 후 사용하면 됩니다. “교역자는 성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성사들을 집전할 때 주교에 의하여 최근에 축성되거나 축복된 올리브나 그 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9조 제2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묵은 성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847조 1항)